*Tree Tops
Stage 9 Fiction – The Big Little Dinosaur
Cover Note & 본문 번역

P3	1 보물찾기 쌤은 엠마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 둘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고 항상 모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P4	어느 날, 엠마는 해적 만에 가서 모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야, 너 지금 뭘 파내고 있는 거야?' 쌤이 물어봤습니다. '보물을 파내는 중이야' 엠마가 말했습니다. '여긴 해적 만이니깐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을 거야'
P5	샘은 구멍 속으로 내려가 엠마가 흙을 퍼내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쨍그랑! 엠마의 삽이 모래 밑 무엇인가를 내리쳤습니다.
P6	그들은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파서 밧줄로 이용해 구멍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서서 그 물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밝은 초록색에 약간의 빛나는 갈색을 띄고 있었습니다.
P7	'어마어마한 포탄이야!' 엠마가 결론지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적에게 쏘았다가 놓친거야!' 몇년만에 처음으로 해가 이 큰 폭탄위로 내리 쬐었습니다. 큰 포탄이 마치 무엇인가가 안쪽에서 깨어나 뻗으면서 자라난 것처럼 실룩거렸습니다
P8	그것은 아주 약한 실룩거림이라 쌤과 엠마는 둘 다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학교로 가지고 가자!' 쌤과 엠마가 결정했습니다.
P9	다음 날, 쌤과 엠마는 학교로 위풍당당 들어섰습니다. 엠마는 손수레를 끌었고 쌤이 엠마를 도와 밀었습니다. 손수레안에는 큰 무언가가 쌤 아빠의 낡은 코트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P10	'얘, 앰마야, 이게 뭐니?' 교장선생님이 손수레 멀찌감치 서서 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엠마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코트를 홱 걷어냈습니다.
P11	어마어마한 포탄인데 우리가 찾았어요!' 쌤이 말했습니다. '우린 이걸 학교에 기부할 거에요!' 모두가 그들이 어마어마한 포탄을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P12	쌤과 엠마는 유명해 졌습니다. 신문은 그들은 포탄 아이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포탄 아이들- 두 명의 이 지역 아이들이 오래된 포탄을 바닷가에서 발견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P13	2 그날 밤 그날 밤, 달이 큰 포탄을 비췄습니다. 포탄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점점 빨리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고...
P14	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살짝 경련을 하더니 멈췄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너무 빨리 자라는 바람에 휴식이 필요했다는 듯이... 그리고선 조금 더 자랐습니다.
P15	그리고선 터졌습니다! 뱅! 초록연기 구름이 생겼고 그 연기 속에서 아기 공룡이 나왔습니다.
P16	3 '우리는 한 배를 탄거야!' '어머나!'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를 본 교장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복도에는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커튼도 없었고, 체육 매트도 없었고, 탁자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큰 이빨을 가진 '어떤 것'에 의해 다 씹혀버렸습니다.
P17	큰 창문이 있던 곳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니!' 벽에 난 큰 구멍을 들여다 보며 쌤과 엠마가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얘들아?' 교장선생님이 물었습니다.
P18	'저기 아기 공룡이 우리 축구 경기장에서 깊이 잠들어 있어요!' 쌤과 엠마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포탄이 잃어버린 공룡 알이었던 게 분명해. 큰 포탄 같이 생겼잖아.' 모두가 구경을 하러 뛰쳐나왔습니다. 거기, 축구 경기장에는 꼬리를 가까운 골대에 휘감고 있는 아기 공룡이 있었습니다.
P19	'우리 학교 전체를 다 먹어 치울 수도 있겠어!' 쌤이 엠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거야!' 엠마가 말했습니다. '동물원 소장님을 불러!' 교장님이 소리쳤습니다.

P20	동물원 소장님은 그물을 든 여러 동물원 인부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전교생이 작은 공룡으로부터 안전한 경기장 끄트머리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P21	우리가 당신의 학교를 이 위험에서 구해드릴게요, 부인.' 동물원 소장님 교장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물원에 갖다 두면 우린 영원히 유명세를 탈 겁니다!' 작은 공룡이 한 쪽을 눈을 뜨고 깜박거렸습니다. 그리고선 동물원 인부들과 그들의 그물망을 보고서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P22	'이건 우리의 공룡이고 우리가 학교에게 준거에요! 가지고 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쌤과 엠마가 외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한 아기 공룡을 저 많고 큰 아저씨들이 쫓다니!' '하지만 어쩌겠니?' 교장선생님 말했습니다.
P23	'우리에게 맡기세요!' 쌤과 엠마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으르렁거리며 동물원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너희 같이 작은 애들이 저 위험한 공룡으로부터 학교를 지킬 수 있겠니?'
P24	4 'Ug?' 아기 공룡 조차도 꽤 큰데 이 공룡은 쌤과 엠마보다 훨씬 컸습니다. 공룡은 반짝거리는 피부과 커다란 이빨이 있었습니다. '우릴 먹어 치울 수도 있어," 엠마가 부들부들 떨면 말했습니다. '안 그럴수도 있어!' 쌤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채식주의일 수도 있잖아'
P25	그들은 골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기 공룡은 눈을 끔뻑였고 커다란 눈물이 기다란 코를 따라 흘러 내려왔습니다. '아직 애기일 뿐이야, 엠마야' 쌤이 속삭였습니다. '아주 큰 애기!' 엠마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 같아, 내 생각엔'
P26	쌤은 용감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서 아기 공룡의 코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선 엠마가 부드럽게 공룡의 귀를 손가락 끝으로 간지럽혔습니다. '그래, 그래, 아가야,' 우쭈쭈하며 엠마가 말했습니다. '울지마.'
P27	'저들이 너를 동물원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할게!' 쌤이 공룡의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Ug?' 아기 공룡이 말했습니다. 'Ug!' 엠마가 아기 공룡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Ug!' 비록 'Ug'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쌤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쓰다듬고 희망할 뿐이었습니다.
P28	아기 공룡이 쌤과 엠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기 공룡이 아주 큰 이빨을 드러내며 아기 공룡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선 다리를 공중에 띄운 채로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P29	아기공룡은 새끼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며 버둥거렸습니다. 동물원에서 온 사람 빼고 모두가 (그 모습에) 환호했습니다. 그는 화가 난 채로 그의 밴을 몰고 떠났습니다.
P30	이제 학교는 공룡을 애완동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공룡은 축구 경기장 끄트머리에서 지냅니다. 쌤과 엠마는 수업이 끝난 후, 오래된 나무와 잘린 풀들과 매일 학교 저녁에서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아기 공룡에게 갑니다.
P31	그들은 아기 공룡을 씻기고 빗질해주고 이빨을 닦아 줍니다. 학교 운동장 주위로 산책도 시키는데, 매주 조금씩… 커져갑니다!